

신냉전사: 중국현대사의 새 영역 - 비평과 전망 (이병한)

김준석

- 신냉전사: 다국적 1차 자료의 활용, 국제적 학술교류망의 구축, 인문학적 방향전환, 제3세계 냉전에 대한 관심 증대
- 신냉전사에서 중국학계의 기여가 상당함.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역사학과 ‘냉전국제사연구센터’. 『冷戰國際史研究』 2001년 출범, 세계4대 연구기관으로 꼽힐만큼.
- Leffler와 Westad가 편집한 *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*(2010)에 비견될 만한 『國際冷戰史專題講義』(북경대출판사, 2006)
- 중국에서 냉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『現代漢語詞典』: “국제적으로 전개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.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집단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행한 도발이나 파괴, 국제적 긴장을 야기하려는 활동”
- 1991년이 분기점: 구소련 문서의 대량공개가 냉전사 연구의 기폭제가 됨. 중국공산당사 전공자 중 牛軍, 楊奎松, 세계사 전공자 중 沈志華, 李丹慧 등이 대표적 연구자
- 沈志華: 화동사범대학 냉전국제사연구센터 소장.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었다가 상업계에서 10여 년 돈을 번 후 다시 연구자로 복귀.
- 중국자료의 공개 역시 냉전사 연구에 기여. 2004년 이후 외교문서가 점진적으로 해제됨. 외교부 당안관이 자료집도 발간. 『解密外交文獻: 中華人民共和國建交檔案』 『中華人民共和國外交檔案選編』, ‘냉전기 중국과 세계’ 총서(북경대 현대사료 연구센터)
- 국제적인 학술교류.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리잡은 중국계 학자들의 역할. 薛理泰, 張曙光(1940년대 말~50년대 초 미중 충돌의 문화적 요인을 강조)
- 陳兼(Jian Chen): *Mao's China and the Cold War*. 냉전기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오의 계속혁명론과 더불어 중국 중심의 도덕적/문화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함. 냉전의 성립과 지속, 종식에서 미소 경쟁 못지않게 중국의 독자적 위상을 고려해야 함. 냉전이 열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1950년~60년대 아시아 냉전의 전개와 중국의 참여에 있음. 사회주의 이념과 함께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발상과 태도를 강조.
- ‘冷戰熱’: 냉전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. 중국에서 냉전연구의 의미: “중국은 동서 유럽처럼 냉전의 핵심지대는 아니었지만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같이 냉전의 주변지대라고도 할 수 없다.” 냉전은 중국과 무관하게 시작되었지만 깊이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음. 특히 중국은 가장 격렬한 대립이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직접 개입함.
- 중미 관계: 주로 갈등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림. 미중 관계 연구 대다수가 미국의 냉전 정책과 전략을 연구. 신중국 승인여부, 대만해협위기, 티베트문제, 미국의 동남아화교 정책
- 중소관계: 중국의 능동성을 강조. 중국은 1956년 헝가리 사태에 소련이 개입을 주저한 것에 대해 비판. 중국의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고, 중소분쟁의 원인이 됨. 중소분쟁: 심지화의 『中蘇關係史綱』 사회주의 동맹 내부의 위계와 각국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원칙 사이의 모순의 결과로 설명. 아시아형 냉전구도의 탄생: 신중국의 성립(1949), 중소동맹(1950), 한국전쟁(1950), 미일동맹(1951)
- 한국전쟁, 베트남전쟁: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음.
- 중국 냉전 연구의 성과물이 영어로 번역되어 읽힘.
- 중국중심주의의 문제: 청말 이래 중국의 중심적 지위 회복과 중국의 독자적 근대성의 실현

이 중국 정치 엘리트들의 일관된 목표였으며, 냉전기 또한 이러한 목표 추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. 아시아의 냉전은 1950년에 시작되어 미소화해와 함께 1971년에 끝났다.